

농촌마을 개선사업 탄력

임실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5년 연속 선정

임실군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5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군은 취약지역 주민들의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등 농촌지역 생활여건을 바꿔 나가는 '2020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임실을 연화마을과 청용면 발산마을이 최종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임실군은 2015년 임실을 감성마을을 시작으로 2016년 운암면 쌍암마을, 2017년 관촌면 방현마을, 2019년 임실을 갈마마을에 이어 올해 2개 마을이 추가로 선정되며 농촌마을 개선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농촌마을의 주거취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주거여건이 열악하고 안전·위생이 취약한 농어촌 마을에 긴급한 집수리, 안전시설 확충, 화장실 등 최소한의 기본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올해 선정된 2개 마을에는 2022년까지 3년간 32억여원이 투입, 대대적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추진된다.

주요 사업은 슬레이트 지붕철거와 지붕개량을 비롯하여 빈집정비와 마을안길정비, 담장정비 등 위험요소를 제거한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추진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 대상지 선정과 사업계획수립, 평가에 이르기까지 현장행정을 적극 추진한 결과라는 평가다.

군은 앞으로도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여건 구축을 위한 관련 사업의 지속적인 발굴 추진으로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

심민 군수는 "5년 연속 사업에 선정된 것은 주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참여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더불어 정책을 만들어 주민들의 생활을 깊이 파고드는 정책을 많이 발굴, 국비 확보에 더욱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이미션 남원시의회, 재난 기본 소득 도입 제안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시민 기본 생계소득 보장 정책 필요"

남원시의회 이미션 의원은 제 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원시 재난 기본 소득 도입을 제안했다.

이미션 의원은 한국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



염증(코로나19)으로 극심한 경기침체 상황에서 정부의 추경안 편성과 집행이 결정되었으나, 시민들은 이마저도 기다릴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생계소득을 보장해주는 정책이 필요하기에 소비 진작이 아닌 대응책으로 '재난 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부대책은 버티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소득을 지원해 주는 남원시민의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며, 남원의 경제구조 규모와 복지비지출 비중(OECD 절반 수준)을 고려할 때 가능한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람을 살려야 지역경제, 내수경제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회복 기대와 심리가 꺾이는 시점에서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농기센터, 유기농업기능사 자격증 취득 과정 교육생 모집

순창군농업기술센터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다양한 교육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생산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유기농업기능사 자격증 취득 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유기농업기능사는 농업 분야에 관한 국가기술자격 제도로, 유기농업 분야의 입지선정, 작목선정 등을 기획하고, 운작체계 및 자재의 선정, 토양비옥도 및 병해충방지, 시비방법선정 사료확보 등 생산, 축사 설계, 축사분뇨처리 업무와 유기농산물 원료의 가공, 포장, 유통 직무를 수행한다.

최근 각종 환경오염이 심해지며 면역력 강화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오가닉라이프와 차별화된 유기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수요도가 증

가함에 따라 관련 분야 산업시장도 커지면서 유기농업기능사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교육은 전문강사를 초빙해 작물재배, 토양관리, 유기농업 일반, 실습(토양산도측정 등) 등 총 20회 과정으로 진행하여 오는 6~7월에 있을 자격증 시험에 대비할 예정이다.

신청은 유기농업에 관심 있는 영농인 등 순창군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모집인원은 20명으로 오는 13일까지 순창군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계나 읍면 농업인상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방문이 어려운 군민을 위해 FAX(063-650-5139)로도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순창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받아

남원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해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1분기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

신청자격은 모든 국민이며 공개대상사업기준은 ▲장·단기 계획을 포함할 시정주요 정책사업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다수 시민과 관련된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사항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이다. 신청기간은 10일부터 31일까지이며 감사실 정책실명제 담당자로 우편 및 이메일,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사업을 선정해 시 홈페이지와 실과소읍면동 게시판 활용을 통해 공개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이 지난해부터 시작한 대학진학축하금 지원을 올해도 시행한다.

순창군, 대학진학축하금 지원

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위해 학생 1인당 200만원 지급

올해 대학신입생을 자녀로 둔 순창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순창군이 10일 지난해부터 시작한 대학진학축하금 지원을 올해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학진학 축하금 지원제도는 순창군에서 대학 생활에 필요한 주거비와 생활비 성격의 축하금을 지원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지역 애환심 고취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학생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순창군 학생들은 대학 진학을 위해 서 인근 광주, 전주를 비롯해 서울 등 수도권으로 진학할 수밖에 없어 학비 외에 생활비 등이 소요되어 학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해부터 시작된 대학진학 축하금 지원제도로 다소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어, 금전적인 혜택을 보는 관내 학부모들에게 만족도가 매우 높다.

이 제도 시행을 앞두고 사전에 보건복지부 협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으며, 시행을 장담할 수 없었지만 관계 공무원이 수시로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가나간 설득 끝에 지난해부터 대학진학 축하금을 지원하게 됐다. 그 결과로 군은 지난해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신입생 181명에게 200만원씩 총 3억6천2백만원의 지급하며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줬다.

올해 대학진학 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는 올해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진학한 신입생으로 신청기준일 현재 학생과 부모중 한 명이상이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기한은 오는 30일까지며, 기한 내 신청을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2차 신청도 받을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귀농 창업·주택 구입 용자금 42억원 지원

남원시가 지립기반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귀농인들을 위해 상반기에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용자금 42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 사업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한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을 저금리로 장기용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창업자금의 경우 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농기계 구입 등 가구당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하며, 주택자금은 최대 7천5백만원 한도 내 주택신축이나 구입을 지원한다.

남원시는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하고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귀농인 또는 재촌 비농업인을 대상으로 최종 18명을 선정하였으며,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5명은 하반기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배세근 농촌활력과 과장은 "시에서는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농업기술센터 키다리병 예방 총력

순창군농업기술센터는 영농철을 맞아 온탕소독기를 이용한 벼 종자 소독법으로 키다리병 제로에 도전한다.

키다리병은 벼 종자가 발아하면서 분비하는 영양원을 이용해 쉽게 증식을 하고 지베렐린을 분비하여 정상보다 1.5배 이상 웃자라는 증상을 보인 후, 1~2주 이내에 위축되면서 말라 죽는 병이다. 못자리뿐만 아니라 본답에서도 발생해 농가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수번 구역 6개소 감시 초소에서 조별로 담당 구역 내 방치 쓰레기 수거 정화 활동 및 쓰레기 투기 행위, 차량 세차행위, 낚시 행위, 오물 투기 행위 등의 불법 행위 감시·계도 업무를 수행한다.

김금순 환경보호과장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옥정호 상수원 지킴이는 상시 감시가 가능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피해 최소화가 가능하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하고 있는 옥정호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옥정호 수질 보전 상수원 지킴이 모집

임실군이 옥정호 수질 보전을 위해 수질오염 행위 감시 및 정화 활동을 펼칠 2020년 옥정호 상수원 지킴이를 모집한다.

군은 지난해 옥정호 상수원 지킴이를 채용하여 옥정호 수변의 방치 쓰레기 77톤을 수거·처리하는 등 수질보전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며 수질개선에 큰 효과를 거두었다.

올해도 옥정호 수질 보전을 책임질 옥정호 상수원 지킴이 23명을 채용하며, 모집기간은 이달 18일까지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현재 임실군 옥정호 상수원 집수 구역(운암면, 신평면, 신덕면, 강진면)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자로 환경관리에 대한 의식과 책임감이 강한 자이다.

지킴이들은 강수량과 행락객이 많아지는 4월부터 10월까지 옥정호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과 수변 구역 정화 활동을 추진한다.

수번 구역 6개소 감시 초소에서 조별로 담당 구역 내 방치 쓰레기 수거 정화 활동 및 쓰레기 투기 행위, 차량 세차행위, 낚시 행위, 오물 투기 행위 등의 불법 행위 감시·계도 업무를 수행한다.

김금순 환경보호과장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옥정호 상수원 지킴이는 상시 감시가 가능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피해 최소화가 가능하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하고 있는 옥정호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

